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 39:1~9)

로키산맥 해발 3천 미터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세계적으로 가장 선율이 아름답고 공명이 잘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 것이지요. 요셉의 생애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17세에 형들의 시기로 타국에 종으로 팔려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오직 정도만 걸음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지요. 현실적으로는 불통한 것 같았지만 법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가장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 1. 정도를 좇으며 성실로 식물을 삼은 요셉

야곱은 노년에 낳은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자 다른 아들들은 시기가 났지요. 게다가 어린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니 형들이 더욱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단을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지요.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더해졌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아넘기지요.

요셉은 부유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의 종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원망하며 좌절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주어진 삶에 성실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귀히 여기고 마음 다해 관리했지요. 그러자 주인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 소유를 다 위임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성실한 요셉과 함께하시며 법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를 맡을 때부터 온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지요. 이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했습니다. 이를 뿌리치느라 요셉은 자기 옷까지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지요. 양심을 품은 그녀는 보디발이 집에 오자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 말합니다. 보디발은 대로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에게도 인정을 받아 옥중의 모든 사무와 죄수들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습니. 매사에 정도를 지키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고민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며칠 후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지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요.

### 2. 하나님 축복으로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어느 날, 애굽 왕 바로는 기이한 꿈을 꾶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와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켰지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애굽 술객과 박사도 해석하지 못했지요.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며 왕에게 그를 천거했습니다. 왕은 요셉을 불러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대답하지요. 왕의 꿈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즉 일곱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일곱 해의 풍년을, 일곱 파리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풍년 다음에 이어질 일곱 해의 흉년을 말하며 흉년이 어찌나 극심한지 그 전의 풍작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꿈을 연달아 꾸는 것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지요.

바로 왕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한 요셉은 차후 대처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 전 애굽에서 일곱 해 풍년 동안의 소산을 거두고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바로 왕은 그를 총리로 세워 애굽 온 땅을 관리하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수많은 소산을 거두어둡니다. 그러니 7년 기근 때에도 애굽 왕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각지에서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 중에는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타국에서 13년의 세월을 고생했지만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하지요.

이처럼 모든 일에 선한 마음으로 행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 섭리 속에 크게 쓰였습니다.

### 3. 요셉처럼 득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한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삶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도를 좇으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누구를 만났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끌어 줄까를 생각합니다. 설령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법사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므로 설령 죄인이라도 변화시켜 축복받을 수 있게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난 사람도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등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각종 사고나 어려움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득죄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에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위치 속에서 도리를 다하는 선한 사람이 돼 법사에 형통하므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663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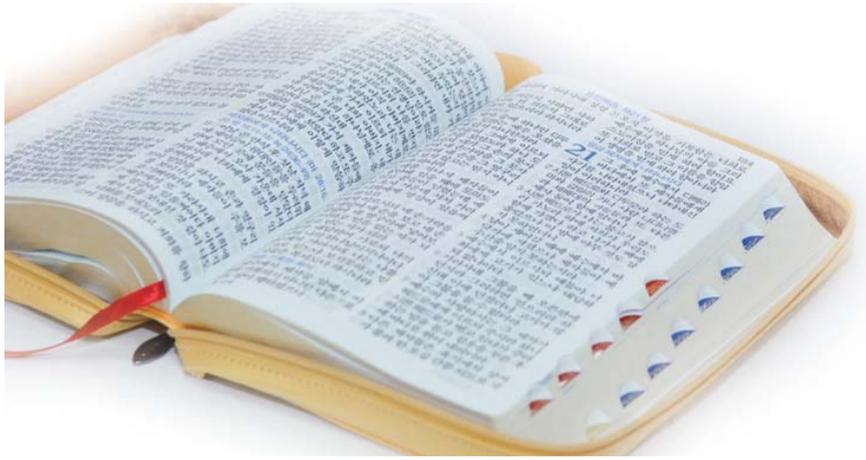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어린 양과 양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Q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도를 양으로 표현하기에 저는 어린 양이 신앙생활을 갖 시작한 초신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다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양과 어린 양은 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성경은 양과 어린 양을 영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 자녀 된 성도, 어린 양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신 후 수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시지요. 주님께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는데 과연 어린 양과 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1. 양과 어린 양의 일반적 의미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순하고 온유하며 약이 없고 순종을 잘합니다. 뿔이 있어도 받

을 줄 모르며 싸울 줄 모르지요. 또한 자기 털을 깎아도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 음성을 잘 알아듣기에 설령 누군가 주인 목소리를 흉내 내어 부른다 해도 절대로 그 소리에 응하지 않으며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릅니다.

또한 양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양고기는 냄새도 적고 육질이 부드러워 맛이 매우 좋습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쓰이며 젖은 음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양은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같이 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이 아주 유순한 사람을 말하고, ‘양털같이 희다’고 말하면 희고 깨끗해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양 중에서도 교미하기 전의 양, 생후 대략 1년 된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그 빛이 매우 희고 아름다워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털도 유난히 부드럽고 깨끗해서 고급 의류에 쓰이는 등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영어로도 일반 양을 Sheep)이라 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램 (Lamb)이라 부릅니다.

## 2. 성경에 나오는 양과 어린 양의 영적 의미

시편 23:1에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며 하나님은 목자, 성도들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78:52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시편 79:13에는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마태복음 10:6에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마가복음 6:34에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등 양을 하나님 자녀 된 천국 백성, 곧 성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1:29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고, 요한계시록 5:6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시며 어린 양을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는 무차원인 ‘건고한 기초 돌’ 곧 ‘반석’에 비유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차원인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또한 2차원으로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3차원으로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표현하고, 4차원으로는 요한복음 1:1 이하에서 ‘하나님 곧 구세주,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의 기초 없이 어린 양의 의미를 오해해서 초신자로 설명하곤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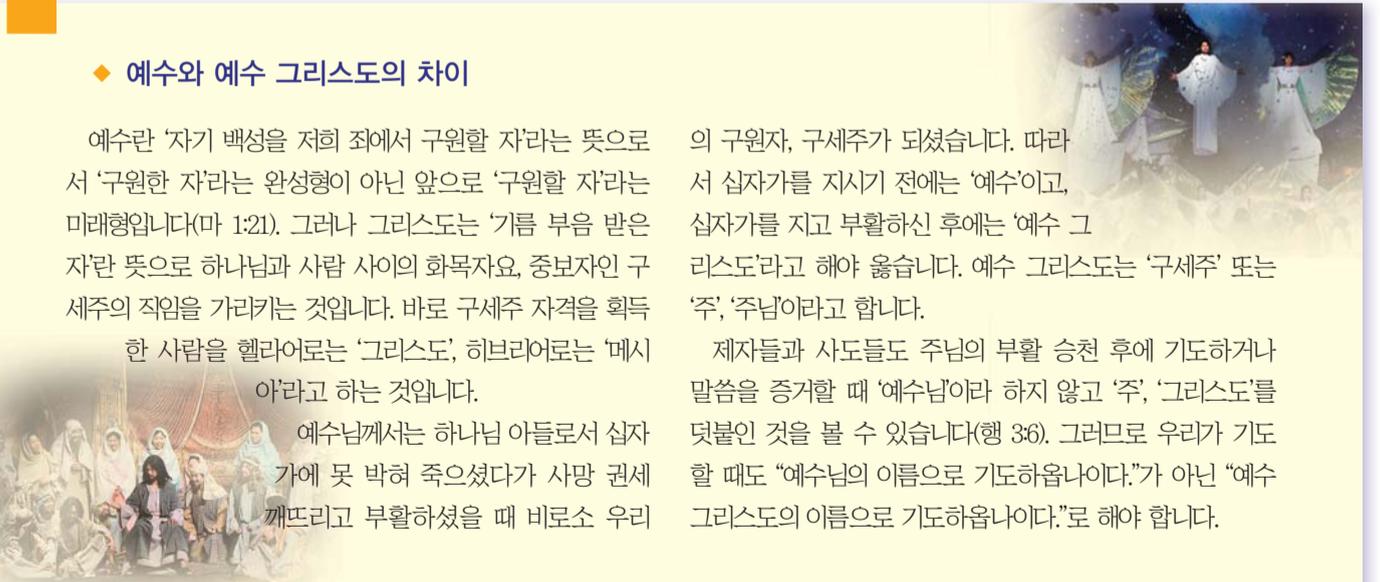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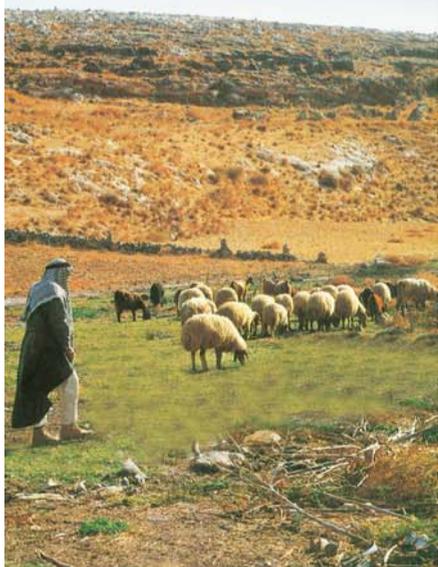
### ◆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구원한 자’라는 완성형이 아닌 앞으로 ‘구원할 자’라는 미래형입니다(마 1:21).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요, 중보자인 구세주의 직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

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이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또는 ‘주’, ‘주님’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도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주’, ‘그리스도’를 덧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행 3:6).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로 해야 합니다.



천국의 푸르름이 느껴지는 6월! June 6 GCN Programming Guide 주요 프로그램

“천국을 소망하며 성결로 나아가는 시간, GCN이 준비한 총명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세요.” 24시간 연중무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찬양 프로그램

- 십계명 1-3
- 전국 35-39
- 믿음의 분량 15-19
- 사랑장 10-14
- 이수진 목사의 '팔복 7-9'
- 정구영 목사의 '십자가의 도13-14'
- 이미영 목사의 '지극한 사랑'
- 김수정 목사의 '마음가짐'
- GCN파워프레이즈(2) 17-18
- GCN 특선만화
- 예수

1577-2073

# “하나님 사랑으로 중증 수족 냉증을 치료받았어요”

카네다 시즈코 성도 (일본 이다 만민교회)

2011년 8월, 하야시 히로코 성도님의 인도로 이다 만민교회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날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럽없이 다가와 주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밀려왔지요.

성전에 들어서서 그 안에 걸린 그림이 아름다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가까이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예요."라고 알려 주셨지요.

사후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지옥은 정말 비참한 곳이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후 세계가 분명 있구나. 나도 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천국에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순간 강하게 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각종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2011년 9월 21일, 매달 정기적으로 있는 '이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서 유승길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손수건 집회'에서는 강사님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

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저는 더욱 믿음을 갖게 됐고 사모함으로 25일, 이희선 목사님 초청 '나고야 만민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에 참석했지요. 강사님이 권능의 손수건을 제게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받는 순간 머리 위가 뜨거워지고 땀이 났는데 그 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쯤,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돼 생긴 냉증으로 인해 위장과 허리, 발목,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지요.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핫팩을 허리, 발목, 발바닥, 배 등 몸 곳곳에 붙여야 했고, 반신욕도 해보며 치료하려고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지요.

저는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하는 생각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받은 뒤 몸속을 파고들던 추위도, 통증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겨울에도 핫팩을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건해졌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값진 체험을 한 저는 치료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저의 간증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요.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 모임에서 류은경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뜻을 알아가니 행복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MIS(만민국제신학교) 2년 과정에 입학해 하나님 마음과 뜻을 더 밝히 알고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결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마음에서 미움을 버리니 유방멍울이 자취를 감추었어요”

나다곤 톰사트 전도인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2012년 5월 28일, 오른쪽 유방에 통증이 느껴져 만져보니 멍울이 잡혔습니다. 차츰 동전 크기만큼이나 커지더니 통증도 심해지고 호흡까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치앙라이 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영적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침 한 주 전에 만민중앙교회 한주경 찬양선교사님의 폐결핵을 믿음으로 치료받은 간증 설교를 화상으로 보았기에 더욱 치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 모습을 돌아보니 미움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년 전, 저를 무시하고 힘들게 한 몇 사람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저는 심히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뒤 6월 1일, 화상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를 드리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통증이 사라졌고 멍울도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우쳤습니다.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셨는데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준행하지 못했지요. 치료 후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6월 8일,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본당에서 금요철야예배를 드리며 직접 설교를 들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은혜로웠고, 제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당회장님께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이더니 뜨거운 바람이 가슴으로 '훅' 밀려들었습니다. 순간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면서 태국 이재원 선교사님이 "기도 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삼상 12:23)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지요.

6월 11일에는 바닷가의 짙물이 단물로 변한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과 천사를 보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무안단물을 마신 후에는 어린 시절부터 늘 목이 건조하고 특히, 기후 변화에 민감해 기침이 났던 것까지 치료받았지요. 이처럼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한 카네다 시즈코 성도(맨 오른쪽)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사창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